

페리 필립스 박사, 미가, 순환도로 밖의 선지자 , 6회, 미가 5

© 2024 Perry Phillips 및 Ted Hildebrandt

이것은 페리 필립스 박사와 선지자 미가서, 순환도로 밖의 선지자에 대한 그의 가르침입니다. 이것은 세션 6, 미가서 5장입니다.

우리는 지금 미가서 공부를 계속하고 있으며 5장을 공부할 것입니다.

우선, Elaine의 현재 4장 발표에 대한 매우 간략한 검토를 통해 우리가 발견한 것은 역사적, 지리적 환경입니다. 1장에서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맺으신 언약 논쟁을 펼치며, 여호와께서는 재판관과 증인으로 역사하십니다. 그런 다음 2장에서는 지도자들의 죄, 기본적으로 억압, 선지자들의 거짓이 언급됩니다.

이전에 했던 3장에서 우리는 정의를 뜻하는 Mishpat를 불의가 아닌 Gazal과 비교합니다. 그런 다음 우리는 주님께서 이 나라에 가져오실 대책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다가 4장에서는 회복의 예언이 있었지만 그 날이나 다가올 말일까지 여전히 고통이 남아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5장을 시작하고 이 장의 흐름은 다음과 같을 것입니다. 처음 네 구절은 발에서 나오는 발이 메시아 통치자, 즉 이 특정 장에서 통치자라고 불리는 메시아 왕에게로 가는 것을 다루고 있으며, 메시아는 결국 모든 것을 바로잡을 것입니다. 그 다음 5-6절에서는 통치자가 어떻게 자기 백성을 보호할 것인지에 대한 사역을 봅니다.

다음 세 절(7절부터 9절)로 넘어가면,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은 열국 가운데 있게 될 것이며, 이는 다시 포로의 이미지를 불러일으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10절부터 15절까지는 이스라엘이나 열방에 대한 야곱의 승리에 대한 해설입니다. 적어도 그것이 그럴 수도 있고, 아니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궁극적으로 다루실 것을 미리 내다볼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그것에 도달하면 그것에 대해 논의할 것입니다.

미가서 5장 영어 1절은 히브리어 4장 14절입니다. 따라서 5장의 영어 버전에 대한 히브리어 버전을 얻으려면 1을 빼면 히브리어 버전이 됩니다. 그러나 나는 이 특별한 강의를 듣고 있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아마도 그들의 영어 성경을 보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영어 열거를 사용할 것입니다.

이제 더 이상 고민하지 말고 해당 장의 설명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51절부터 54절까지를 보면 패배부터 메시아 왕, 즉 통치자의 출현까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1절, 오 군대의 딸아, 이제 네 군대를 소집하라! 우리를 에워싸고 막대기로 이스라엘 재판관의 뺨을 치니

이것을 분석해 봅시다. 이것은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오는 나라들에 관해 이야기하는 4장 11절에서 따온 것입니다. 그리고 그 구절은 일레인이 설명했듯이 이제 많은 나라들이 당신을 반대하여 모여서 말하기를, 그녀가 더럽혀 지게 하고 우리 눈이 시온을 바라보게 하라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더럽혀진 우리는 그녀를 짓밟고 추악한 장면을 바라보듯이 그녀를 바라볼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열방이 시온을 가지고 행할 일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구절이 선택되는 곳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어떤 종류의 공격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그 부름은 방어를 준비하라는 것입니다. 오 시온의 딸아, 시작하자마자 군대를 소집하라! 군대를 모아라! 준비해! 군대라는 단어는 예루살렘을 침공하고 침공하는 것을 강조하는 군사용어이다.

우리는 미가서 1장 9절에서도 그 내용을 봅니다. 이제 이것은 의심할 바 없이 기원전 701년 유다를 향한 앓수르의 진군과 관련이 있습니다. 아래 5절에서 앓수르의 이름이 언급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이 앓수르임을 압니다.

그러나 약간 다른 앓시리아에 대한 흥미로운 언급이 있습니다. 우리가 거기에 도달하면 그것이 무엇일 수 있는지 알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군대를

위한 무기 호출입니다. 비록 규모는 작지만 그들은 막강한 아시리아의 거대괴수와 맞서 싸울 준비를 해야 합니다.

딸은 도시를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시온의 딸은 시온의 성입니다. Elaine이 언급한 것처럼 예루살렘에 대해 많이 사용되었습니다.

그것을 보면 미가서에서도 볼 수 있고, 일레인의 말에서 알 수 있듯이 선지자 이사야서에서도 많이 사용됩니다. 이는 예루살렘, 시온을 의인화하지만, 하나님과 시온 사이의 부드럽고 취약한 관계를 암시합니다. 딸이에요.

아버지와 딸의 관계는 사랑입니다. 그러나 반면에 딸이 제멋대로 행동하면 그것은 책망과 징계가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성경에서도 그 이미지를 발견합니다.

딸 시온은 하나님의 실망과 슬픔, 형벌과 함께 등장합니다. 우리는 이사야와 예레미야서에서 그것을 볼 수 있으며, 이사야서에서 구원의 약속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전투는 패하게 됩니다.

군대를 모아 전투를 준비하세요. 하지만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이스라엘 재판관의 뺨을 치십시오. 그리고 이것은 굴욕을 의미합니다.

이는 전투에서 패할 것임을 의미합니다. 흥미롭게도 이것은 또 다른 말장난이다. 파업은 샤바트(shavat), 판사는 샤파트(shaphat) 이다.

자, 히브리어 본문을 보고 계시는 분들은 학술 저널에 나오는 것처럼 히브리어 단어를 소리 나는 대로만 기록한 점을 겸손한 종에게 용서해 주십시오. 그러나 당신은 말장난에 대한 아이디어를 얻습니다. 파업, 샤바트, 판사, 샤파트.

열왕기상 22:24에서는 뺨을 맞으면 굴욕을 당한다는 사상을 제시합니다. 이는 열왕기상 22장 24절에 하나나의 아들 선지자 시드기야가 뺨을 달고 아합에게 아람 사람과 아람 사람을 칠 것이라고 하였더니 미가야가 와서 이르되 아니라, 당신은 이것을 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시드기야는 미가야에게 다가가서 그의 뺨을 치며 말했습니다. “영이 어떻게 나에게서 네게로 갔느냐? 그러자

미가야가 대답하여 이르되, 아람 사람이 와서 공격할 때에 네가 숨어 있는 것을 보게 되리라.

욥기 16:10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은 무례하게 내 뺨을 때렸습니다. 나는 욥처럼 완전히 굴욕을 당했습니다.

이사야 50장 6절에 보면 주의 종의 뺨을 맞을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것이 마태복음 26장과 누가복음에서 문자 그대로 예수님께 성취되었음을 발견합니다. 이 문맥에서 재판관인 왕에 대한 언급은 산헤립에게 조롱을 받은 히스기야일 수 있습니다.

말 그대로 뺨을 맞은 것이 아니라, 그가 예루살렘 백성에게 보낸 편지로 인해 히스기야를 조롱하고, 그런데 그들의 하나님, 야훼, 여호와도 조롱하고 조롱하고 굴욕을 당했습니다. 소집하라, 군대여, 소집하라. 이것이 특정 성경 버전에서 번역된 방식입니다.

New English Bible, English Standard Version, NASB 등이 나열되어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른 번역도 있을 수 있습니다.

자신을 소집하는 대신 혈떡거리거나 상처를 입으십시오. 이것이 바로 New English Translation의 Holman Christian Standard Bible에서 찾을 수 있는 내용입니다. 즉, 유다 군대가 전쟁을 준비하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패배를 한탄하고 있으며, 아마도 갈멜산에서 엘리야와 싸울 때 선지자들이 했던 것처럼 굴욕 속에서 자해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특별한 맥락에서 보면, 패배를 슬퍼하는 것은 실제로 앞서 읽은 4장 11절과 더 잘 들어맞습니다. 이제 많은 나라들이 모여서 너를 대적하여 이르기를 그로 더러워지게 하고 우리 눈이 시온을 바라보게 하라 하느니라

제가 언급한 것은 4:11 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는 이 구절이 어떻게 이해되었습니까? 자기 자신이 혈떡이는 건가요? 스스로 조립하는 건가요? 많은 경우, 우리는 구약성서의 그리스어 번역본을 찾아 그들이 어떻게 생각했는지, 어떻게 번역할 수 있는지 확인합니다. 그들은 편트를 했습니다.

그들은 단지 자신을 벽에 가두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다시 벽에 갇히면 패배할 것이라는 생각을 갖게 될 것입니다. 군대의 승리는 없을 것입니다.

이것이 무엇이든 간에 그것은 지는 제안이다. 하지만 여기에 희망이 있습니다. 2절, 모든 사람이 다 아는 바 나라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보잘것없도다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네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에, 태초에니라 고대.

그리고 저는 여기서 New American Standard Bible(NASB)을 사용하고 있는데 요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미가는 이제 우리가 책 전반에 걸쳐 발견하는 일반적인 정죄 약속의 순환에서 약속으로 되돌아갑니다. 이스라엘의 현재 낮은 지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을 잊지 않으셨습니다.

다윗의 후손인 통치자, 히브리어로 미샤이 나올 것이다. 시편 89편에서 볼 수 있듯이 하나님께서는 이미 다윗의 왕권을 영원히 약속하셨습니다. 따라서 다윗과 같은 도시에서 나라를 통치할 지도자가 나올 것입니다.

요셉의 다윗은 나라를 다스리기 위해 베들레헴 에브라다 지방에서 왔습니다. 베들레헴은 다윗의 아버지 에브라다 가문에 속한 사람이었는데, 그는 에브라트 족속이었습니다. 북쪽 지파인 에브라임 족속과 혼동해서는 안 됩니다. 그는 베들레헴 출신이며, 이를 입증하는 구절이 많이 있습니다.

이 씨족은 역사적으로 동일한 혈통에 속한 대가족이나 가족 집단입니다. 유다 씨족 중에서는 너무 적습니다. 이는 통치자를 세울 자이고 이것은 물론 우리를 다윗에게로 인도합니다. 왜냐하면 그 역시 그의 가족 중 가장 작고 종족 중에서 가장 작은 자였으나 왕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비록 그 군대가 실제로 매우 약하고 앗시리아에 맞서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기서 뭔가 유망한 일이 일어나는 것을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마도 다윗처럼 우리도 여기서 다윗과 골리앗의 상황이 벌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씨족이라는 단어에 주목하세요. 같은 혈통의 대가족이라는 점을 이미 언급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것을 볼 때, 우리는 다윗을 볼 때, 통치자가 무엇을 할 것인지, 군대가 막강한 공격자에 맞서 무엇을 할 것인지를 볼 때 생각나게 됩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목적을 이루시기 위해 약한 자들을 사용하십니다. 고린도전서 1장 27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세상의 어리석은 것을 택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강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세상의 약한 자들을 택하셨습니다.

미래의 통치자, 모셀. 이것은 미가가 통치자라는 단어를 사용한 유일한 경우입니다. 그의 나오심은 옛적부터, 영원부터니라.

흥미로운 점은 일부 번역에서 ESV가 사용하는 '앞으로 나아간다'라는 단어를 사용한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그의 기원이 옛날부터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사용된 '나아가다'라는 단어는 왕들이 전쟁에 나가고, 왕들이 정복하러 나가는 데 사용된 것과 같은 단어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이전에 언급했으며 이 용어가 다른 여러 구절에서 사용되는 방식을 봅니다. 그래서 나의 겸허한 견해로는 이 단어의 번역으로서 나에게 있어서 유래는 만족스럽지 못하지만 NIV, TNIV, RSV, Holman Christian Standard Bible 등에 나타난다. 나는 ESV가 한 방식을 좋아한다.

그리고 헬라어로 번역된 칠십인역을 보면 엑소더스(Exodus) 또는 엑소(exo)라는 단어를 헬라어로 사용하는데, 그것이 앞으로 나가고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당신이 말하는 것이 전쟁에 나가는 통치자라는 생각을 불러일으킵니다. 그는 영원히, 과거부터 존재했다는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 계속해서 활동해 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을 통치하러 오실 분이 바로 이분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이 왜 메시아적 구절이고 이스라엘의 적들에 대한 승리를 의미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그의 자유로운 존재가 언급됩니다.

그는 옛날부터, 옛날부터입니다. Miqqedem 또는 Mimei Olam. Elaine은 이전에 Olam이라는 단어를 언급했는데, 이는 오래 전의 의미입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이 단어는 영원하다, 영원하다로 번역됩니다. 아마도 가장 좋은 것은 가장 고대 시대이거나 가장 먼 시대일 것입니다. 이것이 이 눈금자에 적용되는 것입니다.

오래 활동했을 뿐만 아니라, 활동도 오래했다는 사실. 그런데 위에서 언급한 이 두 단어는 같은 의미로 사용됩니다. 신명기 33장에서 우리는 고대 산의 최고와 오래된 언덕에서 생산된 수확에 대해 다음과 같은 내용을 읽습니다.

Kedem과 Olam이 어떻게 함께 사용되는지 주목하세요. 그러면 신명기 33장에서 우리는 영원하신 하나님이 피난처가 되시며, 여러분 밑에는 그분의 영원하신 팔이 있음을 발견합니다. 다시 말하지만, 이 두 단어의 유희는 장차 올 왕인 모셀에게 적용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그분은 영원부터 오셨고, 활동해 오셨습니다. 그러나 베들레헴에서 나오실 것입니다. 이 구절의 메시아적 의미. 예수님 당시의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 서기관들은 이것을 메시야로 여겼습니다.

마태복음 2장에 나오는 것처럼, 이 사실은 잘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흥미롭게도 유대인 연구 성경에는 이것이 다윗에 대한 언급이라고 간단히 나와 있습니다. 미래의 다윗의 후손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개념은 완전히 제거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셨을 때 유대 왕이었던 헤롯 대왕에 대해서는 길게 이야기할 필요가 없습니다. 동방 박사들이 와서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고 물은 것을 기억하십니까? 그리고 나는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것”을 강조합니다. 왜냐하면 그 나라는 바로 예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는 유대인의 왕으로 태어나셨습니다.

헤롯은 유대인의 왕이었지만 왕권을 유지하기 위해 사람을 죽이고, 자기 아들을 죽이고, 자기 아내를 살해하는 일을 저질렀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오시는 분이

계시는데, 그는 유대인의 왕으로 나셨습니다. 그리고 율법학자인 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미가가 예언한 대로 베들레헴을 가리켰습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는 나머지 이야기를 알고 있습니다. 3절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양한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그들을 포기한 사람은 누구입니까? 진통 중인 그녀는 누구인가? 그러면 돌아올 나머지 형제들은 누구입니까? 그는 그들을 포기할 것이다.

그는 그들을 포기할 것이다. 그분은 아마도 우리가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는 주님이실 것입니다. 우리가 앞 절에서 논의한 것처럼 그분은 통치자가 오실 때까지 그들을 포기하실 것입니다.

즉,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이스라엘을 여호와께로 돌아오게 할 통치자가 오실 때까지 앞서 논의한 죄 때문에 유다를 버리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여기에서 아내를 다시 데려온 호세아 3장과 매우 흥미로운 유사점을 발견합니다. 이 경우 주님은 그의 딸을 다시 데려오실 것입니다.

진통 중에 아이를 낳은 여자. 아마도 사람들은 이것이 분명히 예수를 낳은 동정녀 마리아를 가리킨다고 말할 것입니다. 아니요. 하지만 미가서의 맥락을 살펴보겠습니다.

미가와 그의 백성은 이 상황을 어떻게 이해했을까요? 아마도 이 문맥에서 그녀는 베들레헴, 에브라다, 또는 아마도 이 통치자가 나올 통치자를 낳은 나라를 가리킬 것입니다. 그리고 일레인이 언급한 것처럼 미가서 4장 9절과 10절에는 해산하는 여인이라는 문구가 나오는 것도 흥미롭습니다. 그리고 그 특별한 때에 포로 생활로 인해 예루살렘에서 쫓겨나는 탄생을 애도하는 것을 가리킨다.

하지만 이 문맥에서, 이 특정 구절에서, 이 문맥에서는 통치자가 탄생할 때 기쁨의 외침이 될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여러 번 여자가 출산하면서 겪는 고통에 대해 이야기하지만, 그 후에는 아이를 보는 기쁨에 대해서만 이야기합니다. 그 형제 중에 남은 자 곧 환난을 당하게 된 자 곧 해산한 자 곧 낳은 여자가 누구니 이제 통치자가 그 남은 형제를 살펴보고 그들을 다시 데려오리라

이들은 이미 앓수르에게 포로로 잡혀간 북쪽 지파들입니까? 유배로 흩어진 사람들이 모두요, 유배된 자들을 다시 데려오는 장군이냐? 그의 형제들이여, 그 선행자는 우리가 여기서 보는 주님이나 통치자입니다. 이제 그것은 통치자와 그의 관계라는 것이 더 의미가 있습니다. 이것은 미가서 2장과 연결되는데, 여기서 왕은 포로된 백성들을 풀어 주고 그들의 목자가 됩니다. 이것은 일레인이 2장에서 언급한 내용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특별한 의미에서 나오는 것은 포로 상태에서 벗어나 목자 아래 함께 모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여기 이 특별한 구절에서 우리가 갖고 있는 것과 같은 개념입니다. 그뿐 아니라 그 통치자는 온 이스라엘을 통일할 것입니다. 그리고 통치자이신 예수께서 어떻게 평화와 연합을 가져오시는지 유의해 보십시오.

에베소서 2장에는 유대인과 헬라인이 함께 모이게 됩니다. 갈라디아서 3장에는 유대인과 이방인과 종과 자유인과 남자와 여자가 함께 모였습니다. 노동자, 고용주, 모두가 하나로 모였습니다.

그러므로 그는 자기 형제들과 이스라엘 사람들을 한자리에 모을 뿐만 아니라, 이 시대의 통치자를 믿는 모든 사람들도 함께 모으는 사람입니다. 4절은 통치자에 대해 계속됩니다. 그가 여호와와 능력과 그의 하나님 여호와와 이름의 위엄을 의지하고 서서 자기 양 떼를 칠 것이니라.

그리고 그들은 안전하게 거할 것입니다. 이제 그는 땅 끝까지 위대해질 것입니다. 그러므로 통치자가 관심을 갖는 것은 이스라엘에만 국한된 것이 아닙니다. 이제 통치자의 관심은 온 땅 곧 땅 끝까지니라.

그러므로 우리에게서 이스라엘을 연합시킬 통치자, 목자, 왕의 연속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억압했던 통치자들과는 달리, 통치자는 긍휼을 베풀 것입니다. 그리고 미가 시대의 무자비한 지도자들과는 달리 그는 다윗과 같은 목자가 될 것입니다.

주님의 강함은 주님의 위엄, 주님의 이름과 같습니다. 그가 주님의 능력과 주님의 이름의 위엄 안에서 이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이것들은 우리가 여기에 있는 것과 비슷한 아이디어입니다.

그들은 남을 것입니다. 지금과 달리 이스라엘과 유다는 다시는 포로로 잡혀가지 않을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그가 그의 형제들을 데려오면 그들은 그 자리에 머물러 있습니다.

그들은 다시는 추방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통치자의 이름과 권세가 온 땅에 알려질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더욱 종말론적인 때를 기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래에 모임을 가질 시간처럼 보입니다.

그것을 모으시는 이는 온 땅에 이름이 알려진 이이시니라. 이 개념은 이사야서도 나옵니다. 이는 말씀이 시온에서 땅 끝까지 나아간다는 4장 1절부터 5절의 메시지를 실제로 완성합니다.

통치자의 활동은 시온에서부터 땅끝까지 이르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요약하면, 통치자는 다윗처럼 새로운 왕조의 시작을 의미합니다. 비록 전사이기는 하지만 그는 낮고 겸손할 것입니다.

이것은 스가랴 9장에서 알 수 있습니다. 그는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주님을 대신하여 행동합니다. 미가 시대의 악한 통치자들과는 달리 그는 온 이스라엘을 다스릴 것이며 결국에는 온 땅을 다스릴 것이며 우리는 그것을 기대합니다.

두 번째 부분인 5절과 6절로 가보겠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들의 평화가 될 것이고, 앓수르 사람들이 오면 그는 그것을 반대할 것입니다. 이제 흥미로운 점이 있습니다. 5a절, 그리고 그는 그들의 평화가 되리라. 이는 4장과 정말 더 잘 들어맞는다. 그것은 그 특정 장의 끝부분에 정말 더 잘 들어맞는다.

그리고 그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저는 4절을 인용한 다음 5a절로 가서 5a절이 4절과 어떻게 더 잘 어울리는지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그는 주님의 능력으로 서서 그의 양 떼를 칠 것입니다. 그의 하나님 여호와와 이름의 위엄으로

말미암아 안전하게 살리라. 이제 그는 땅 끝까지 위대해지고 그들의 평화가 되리라.

그것이 어떻게 더 잘 연결되는지 보시겠습니까? 이제 5b장에서 앗수르인들이 그 땅에 들어왔을 때 그것은 다른 일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여기서의 해석은 제가 말했듯이 약간의 수정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5a절이 4절과 더 잘 어울리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계속해서 앗수르인으로 넘어가면, 우리는 그들이 이스라엘과 유다와 이 특별한 시간에. 그들은 기원전 722년에 북쪽 이스라엘 백성을 포로로 잡아간 자들이고, 지금은 701년에 예루살렘을 공격하고 있는 자들이며, 이미 유다의 46개 요새 도시를 정복했다고 주장하는 산헤립 왕입니다..

그러므로 이는 미가 당시의 침략 세력이요, 그가 유다를 황폐케 하였느니라. 그러나 앞서 말한 바와 같이 여호와와 사자가 히스기야의 기도를 통하여 개입하심으로 그가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못하였더라. 그리고 185,000명의 아시리아인을 잃은 후 그는 불명예스럽게도 고국으로 후퇴했습니다.

그러나 흥미롭게도 앗시리아는 이스라엘의 다른 적들에 대한 환유, 즉 환유, 즉 이스라엘의 다른 적들을 대신하는 환유로 여러 번 사용되었습니다. 작동 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애가 5장 5절에서 예레미야는 예루살렘을 멸망시킨 앗수르 사람들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바벨론 사람들이 그런 짓을 했습니다.

에스라 6장 22절은 앗수르에 대해 말하고 있지만 여전히 페르시아의 통치를 받고 있습니다. 스가랴 10장과 11장에서는 북쪽 유배 지역의 이집트에 관해 이야기하며, 그 안에는 아시리아라는 용어가 사용됩니다. 그래서 결국 이스라엘은 모든 적들에게 승리를 거두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흥미로운 점은 앗수르라는 이름이 미가 당시에는 실제로 예루살렘을 공격하던 나라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이후 앗수르라는 용어가 다음과 같이 사용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을 치러 오는 적들을 가리키는 일반적인 용어.

이제 그 공격은 어떻게 좌절될까요? 우리는 그분이 일곱 목자와 여덟 방백을 세우실 것이라고 읽습니다. 이것은 International Critical Commentary에서 나온 것이며 우리가 여기서 말하는 일곱 가지와 여덟 가지와 관련이 있습니다. 이것이 성경에서는 어떻게 사용되니까? 그리고 나는 두 번째 숫자가 첫 번째 숫자보다 큰 단위로 배열된 두 숫자(여기서는 7과 8이 있음)가 무한성의 개념을 표현하기 위해 사용된다는 것을 읽었습니다.

이 경우 지도자의 공급은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수요와 동일합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충분함이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것은 그것을 시적으로 말하는 방식입니다. 즉, 이스라엘의 적들을 물리칠 수 있는 풍부한 인력이 생길 것입니다.

일곱 명의 목자와 여덟 명의 방백을 세우겠습니다. 이것은 7부터 8까지의 순서입니다. 예를 들어, 교회서에서도 같은 내용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빵을 물 위에 던져라. 일곱 부분이나 여덟 부분을 나누어라. 즉, 풍성하게 만드십시오. 아모스에서도 동일한 구조가 사용되지만 거기에는 3-4 구조가 있습니다.

다메섹의 세 가지 죄 때문이요 또 네 가지 죄 때문이니라 그러면 다메섹의 모든 죄가 다 이루어지리라. 그래서, 당신은 가는 길을 얻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을 치러 오는 적들을 좌절시킬 만큼 충분한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들은 칼로 앗수르 땅을 다스리며 니므롯 땅을 그 입구로 삼을 것이다. 그가 우리 땅에 들어와서 우리 국경을 밟으면 그 사람이 우리를 앗시리아 사람에게서 구원해 낼 것입니다.

그는 지금 지역적으로 말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아시리아라는 용어가 이제 모든 적에게 사용되고 있습니까? 칼로 앗수르 땅을 다스리라. 그는 칼로 앗수르 땅을 다스릴 것이다. 이것은 평화로운 목양이 아닙니다.

니므롯 땅은 앗시리아에 대한 또 다른 언급이다. 이 도시는 아시리아의 강력한 도시였습니다. 하지만 앞서 말한 내용을 보면 이는 미래를 내다보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창세기 10장에 니므롯과 바벨론 사이에 상관관계가 있기 때문에 바벨론일 수 있습니다. 일레인이 언급했듯이 미가는 이사야와 마찬가지로 장차 올 바벨론의 침공을 고대하며 백성들로 하여금 이에 대비하도록 합니다. 그것은 앗수르 땅을 다스리는 것에 대해 말하고 있으며, 칼이 니므롯의 입구에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흥미롭게도 입구에서 Nimrod라고 말하는 대신 약간의 변화를 주어 칼을 들고 있는 Nimrod가 됩니다. 그리고 그것은 병렬성을 유지합니다. 칼은 앗시리아에 있고 칼은 니므롯에 있으며 거기에는 멋진 평행이 있습니다.

그러나 계속해서 7절과 9절을 보겠습니다. 열방 가운데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 그 때에 야곱의 남은 자들은 많은 민족 가운데 있으리니 이는 여호와께로서 내리는 이슬 같고 풀 위에 내리는 소나기 같으니 그들은 사람을 기다리지 아니하며 인생을 기다리지 아니하리로다. 글썄, 즉시 이슬에 대한 생각이 온통 퍼졌습니다.

소나기가 온통 쏟아진다는 생각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기에서 흩어지고 있다는 생각을 갖게 합니다. 그 다음은 야곱의 남은 자들이다. 그때는 언제인가요? 언제 그런 일이 일어날까요? 그 다음에는 야곱의 남은 자들입니다.

먼저,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흩어지고, 이슬이 내리고, 풀 위에 소나기가 내리는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사람을 기다리지 않으며, 이것이 무엇이든 간에 하나님께서 이것을 지시하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것은 나에게 "무엇이 무엇인지에 달려있다"고 말한 미국 대통령을 생각나게 합니다.

그렇다면 지금은 그때가 무엇인지에 달려 있습니다. 그럼, 그것을 풀어보도록 합시다. 이슬과 소나기는 좋은 것인가, 나쁜 것인가? 이스라엘 백성이 여러 나라 가운데로 흩어지는 것은 좋은 징조입니까, 아니면 여러 나라 가운데로 흩어지는 것이 나쁜 징조입니까? 글썄, 좋은 징조로 보자.

왜 좋은 징조일까요? 이스라엘의 농작물에는 이슬이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소나기 없이, 비 없이, 이슬 없이는 농업이 없습니다. 창세기와 신명기에서는 이것을 축복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므로 이슬과 비가 곡식에 축복이 되는 것처럼 포로 생활을 하는 이스라엘은 열방에게 축복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날에도 유대인 인구가 많은 국가는 일반적으로 사회 전반에 걸쳐 유대인의 참여로 인해 잘 지내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의미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축복이었으며 이곳 미국에서도 확실히 축복이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나쁜 징조일 수도 있나요? 그렇다면 이슬과 소나기가 어떻게 나쁜 징조가 될 수 있습니까? 자, 그것이 호세아 6장에서 어떻게 사용되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이슬은 불성실하고 변덕스럽고 변덕스러운 믿음의 표시입니다. 왜?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스라엘아 너희 믿음은 아침에 마르는 이슬 같으니라 그러므로 이것은 좋은 징조가 아닙니다.

이슬과 아침 안개가 사라지는 것은 여호와께서 북왕국을 멸하실 것과 비유됩니다. 아침 이슬이 사라지듯 내가 너를 쓸어버릴 것이다. 그러므로, 그런 관점에서 보면 이것은 좋은 징조가 아닙니다.

계속하는 것은 나쁜 징조입니다. 다윗이 압살롬을 피해 도망갈 때, 히도벨이 압살롬에게 준 조언은, 아니, 다윗이 예루살렘에서 도망하고 있으니 가서 그를 공격하여 그를 제거하고 그의 백성을 제거하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조언을 좌절시키려는 후새가 나타나서 그는 안돼, 안돼, 안돼, 기다려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군대를 모으면 이슬이 땅에 떨어지듯 우리가 다윗에게 임하리라. 그래서 떨어지는 이슬은 군사적 의미로도 사용될 수 있다고 봅니다. 8절에서 이슬, 소나기, 찢는 사자 사이의 평행성에 주목하십시오.

그리고 포로 생활을 하는 이스라엘을 한편으로는 이슬, 소나기라고 부르기도 하지만 사자, 사자를 찢는 것처럼 부르기도 한다는 점이 흥미롭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것에 도달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떤 결론을 내릴 수 있습니까?

내 생각에는 이것이 축복이라면 이스라엘이 공격을 받고 있기 때문에 일시적인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여러 나라로 흩어질지 모르지만 결국에는 적들에 맞서 일어설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에 대한 또 다른 이미지를 제공하는 8절에 도달합니다. 기억하세요, 우리는 여전히 통치자들이 함께 모이는 형제들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야곱의 남은 자들은 열방 가운데, 많은 백성 가운데 있으리니 그들은 수풀의 짐승들 중의 사자 같고 양 떼 중의 젊은 사자 같을 것입니다. 곧 이것은 탐욕스러운 것이니 그것이 지나가면 밟고 찢고 건질 자가 없느니라. 그런데 갑자기 이스라엘 백성들이 힘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내가 이미 언급한 7절과의 평행성을 주목하십시오. 그러면 야곱의 남은 자들이 많은 민족 가운데 있게 될 것이다. 그리고 8절에 보면 야곱의 남은 자들은 열방 가운데 많은 백성 가운데 있으리로다.

이제 우리는 야곱의 남은 자들인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들 가운데 있다는 생각을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지에 대해 좀 더 나은 정의를 갖게 되었습니다. 이 두 구절은 실제로 함께 받아들여야 하는 구절입니다. 그리고 8절은 7절의 결론을 강조합니다. 내 생각에 이슬과 소나기는 이스라엘이 열국 가운데서 갑작스럽고 광범위한 폭동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잠깐만요. 어떻게 될까요? 또 다른 제안을 해보자. 히브리어로 베케렙(bekereb)이라는 문구는 가운데(가운데)를 의미할 수 있습니다.

그 생각은 이스라엘이 열방 가운데 있다는 것은 개별적인 유대인들이 열방들 사이에 퍼져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그 나라 자체가 그들 주변의 나라들, 즉 중동의 나라들 가운데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물론 오늘날 우리가 발견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중동의 나라 베케렙이고, 세계의 나라 베케렙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그들은 많은 나라들 가운데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여러 나라에 흩어졌다는 뜻이 아니라 베케렙 안에 하나의 나라, 곧 중동이 있다는 뜻입니다. 9절에서 말하는 것을 주목하십시오: 네 손이 네 대적 위에 들리리니 네 원수들이 다 끊어지리라.

그리고 이 경우에 적들 위에 손을 드는 것은 그들을 축복하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뭐가 될 수 있었는지? 당신의 손이 들려올 것입니다. 누구 손? 당신의 손은 누구를 가리키는가? 글썄요, 우선 손을 들었다는 표현은 하나님께 적용됩니다.

이사야서 26장 26절을 보십시오. 주님, 주님의 손이 높이 들렸습니다. 시편 89편에도 주의 손이 높이 들렸으며 주의 오른손이 높이 들렸나이다. 신명기야, 내가 하늘을 향하여 내 손을 들고 내 대적들에게 원수를 갚으리라.

이것은 주님께서 손을 들어 적들을 때리고 쳐부수신다는 개념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그것은 들어 올린 손입니다. 그런데 또 누구의 손이 들렸습니까? 맥락에서.

한편으로는 주님일 수도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당신 손에 가장 가까운 전임자는 야곱의 남은 자들입니다. 그것은 주님보다는 직접적인 선행입니다. 그래서 또 사자처럼 손을 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입니다.

그러므로 내 겸손한 견해로는 이것은 남은 자들을 의미하지만 5장의 통치자의 도움으로 그들은 결국 그들의 대적들을 이길 것입니다. 그리고 9절에 요약하면, 이스라엘과 야곱이 앗수르에 예속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통치자의 사역을 통해 이스라엘은 복수형으로 사용하여 궁극적으로 모든 앗수르 사람들을 정복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앞서 논의한 것처럼 성경이 마지막 때를 인용하여 이스라엘이 적들을 멸망시키고 평화가 뒤따른다고 지적하고 있다는 점은 흥미롭습니다.

그러나 미가서 5장뿐 아니라 이사야서 63장, 요한계시록 19장에 나오는 대로 종이 와서 원수들을 짓밟을 때에야 하나님께서는 그 때에 열방을 멸하실 것입니다. 음, 여기에 질문이 있습니다. 7절과 9절을 함께 연결하면, 여기에는

이스라엘에 접붙여진 교회도 포함됩니까? 결국, 우리는 첫 번째 의미에서 국가 가운데 여기저기에 개인들이 흩어져 있습니다.

교회가 이슬비처럼 열방 가운데 흩어지는 것이 아닙니까? 미가, 스가랴, 다니엘뿐만 아니라 요한계시록에서도 논의되는 통치자이신 예수님이 오실 때 교회는 결국 원수들을 물리치고 승리하게 될 것 아닙니까? 글썄요, 이렇게 말함으로써 제가 교회가 이스라엘 국가를 대체했다는 뜻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국가에 대한 미래 계획을 가지고 계시지 않다는 뜻도 아닙니다. 그러나 그것은 다른 날의 주제입니다. 내가 암시하는 것은 우리가 우리의 통치자 이자 구원자로 신뢰하는 통치자 예수가 결국 우리를 열방에서 데리고 나와 그의 모든 형제들과 함께 데려오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제 미가서 5장 마지막 부분 10-15절을 살펴보겠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이나 열국에 대한 야곱의 승리에 대한 해설로 나오는 것입니다. 아니면 우리가 그렇게 생각합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다루시는 것입니까? 다시 말하지만, 우리는 지역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보편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여호와와 말씀이니라 그 날에 내가 너희 중에서 말들을 끊고 너희 병거들을 멸하리라. 이제 그는 여전히 돌아와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그들이 앗수르뿐만 아니라 다가오는 침략에 맞서 무엇을 하든 성공하지 못할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처럼 들립니다. 적어도 예루살렘은 살아남았지만 어쩌면 바빌로니아 사람들이 쳐들어오는 그 날에도 그랬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후기의 미가서 4장과 그 내용이 암시하는 모든 내용을 가리키는 것입니까? 이것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적들을 다루시는 일의 연속입니까? 9절, 이것이야 아니면 저것이야? 아니면 이것은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멸망이라는 주제로 되돌아가는 것입니까? 9절의 끊어진 원수들이 10절에서 13절의 끊어진 것과 어떻게 연결되는지 주목하십시오.

이것이 제가 말하는 의미입니다. 9절에 보면 원수들을 끊으라고 하셨습니다. 10절에 보면, 그는 말들을 자르려고 합니다.

11절에서는 성읍들을 멸절합니다. 끊어진다는 말은 끝을 맺는다는 뜻입니다. 12절에 복술을 끊어라.

13절, 새긴 형상을 잘라내라. 우상 숭배처럼 들립니다. 이스라엘이 우상 숭배를 해온 것처럼 들립니다.

14절에서 그는 뿌리 뽑기라는 용어를 사용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제거에 대한 동일한 아이디어를 유지합니다. 잘라내고, 잘라내고, 잘라내고, 잘라내고, 뿌리째 뽑으세요.

그가 말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는 마침내 이스라엘의 완전한 뿌리 뽑기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까? 내 생각으로는 이 페리코프는 하나님을 공경하기를 거부하는 나라들을 하나님이 멸망시키는 것을 가리킨다. 즉, 결국 이스라엘의 멸망을 바라보려고 올라온 나라들이 끊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는 정죄받는 히스기야의 변호를 기대하는 것입니다.

참된 힘은 여호와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전에 이에 대해 논의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는 네 땅의 성읍들을 멸절하고 네 모든 요새를 무너뜨릴 것이다.

그리고 내가 네 손에서 마술을 끊겠다. 그리고 당신은 더 이상 점쟁이가 없을 것입니다. 이 구절의 의미는 이전 토론에서 다루어졌습니다.

13절, 내가 너희 가운데서 조각한 형상들과 기둥들을 멸절하리라. 그리고 너는 네 손으로 만든 것에 다시는 절하지 않을 것이다. 여기에는 사람들이 숭배했던 신을 상징하는 조각상이 고고학자들에 의해 발견되었습니다.

왼쪽에 있는 것은 북쪽에 있는 도시인 하술에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게셀에서 발견된 기둥이 있는데, 우리는 그것이 무엇에 사용되었는지 잘 모릅니다. 그리고 그곳의 몇몇 학생들이 그들의 등산 기술을 시험하기 위해 그것을 사용하기 때문에 그것들이 매우 크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는 너희 중에서 너희 아세라 우상을 뽑아 버리고 너희 성읍들을 멸할 것이다. 우리는 이미 바알과 아세라, 폭풍의 신 바알, 다산의 여신 아세라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그리고 15절에 내가 진노와 분으로 순종하지 아니한 나라들에게 보수를 하리라.

그리고 그런 종류의 질문에 대한 답이 되지 않습니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멸망시키신 것처럼 우상을 숭배하는 나라들도 결국 여호와에 의해 멸망될 것입니다. 그러나 차이점은 그가 이스라엘을 다시 데려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스가랴를 읽으면 많은 나라들, 즉 고임족이 돌아올 것이라는 암시가 있습니다.

이에 대해 몇 가지 메모를 해보겠습니다. 열방에 대한 강조점에 주목하십시오. 이것이 바로 제가 겸손하게 생각하는 이유입니다. 10절부터 14절까지의 페리코프는 엄밀히 말하면 이스라엘을 다루지 않고 열방을 다루고 있습니다. 시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심판을 가져오는 나라들의 죄. 하나님은 왜 나라들을 심판하시는가?
이스라엘이건, 야곱이건, 열국이건 상관이 없기 때문입니다. 교만은 죄입니다.

자신의 군대, 부, 문화적 자부심에 대한 자부심입니다. 잔인함은 우리가 아모스에게서 볼 수 있는 죄입니다. 난민에 대한 억압은 오바댜서에서 볼 수 있는 죄입니다.

이러한 일들은 나라들이 행하고 있으며 결국 심판을 받게 될 일들입니다. 특히 하나님의 거룩함을 침해한 일들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내용은 시편 2장 12절에 나옵니다. 그러면 미가서 5장을 간략하게 살펴보면서 무엇을 배울 수 있습니까? 글썄요, 우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죄를 처리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통치자가 오시기 전에는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만이 아니라 여호와를 경외하기를 거부하는 모든 나라를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날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날을 끝내십시오. 이것으로 5장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것은 페리 필립스 박사와 선지자 미가서, 순환도로 밖의 선지자에 대한 그의 가르침입니다. 6회, 미가서 5장입니다.